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4 월호



철저한 정교도였던 조셉 얼라인은 부르심(Call) 또는 경고(alarm)란 제명의 책을 저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개의 경종」이라는 제명으로 '67년에 출간되었다.

그는 서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2의 출생이라는 험악한 길로만 가능하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히 12:14). 그러므로 지금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그대의 마음 속에 주 예수를 모시고 지금 그 분을 그대의 가정에 모시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 입 맞추어라(시 2:12)』고 쓰고 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중생)이 없는 사람들의 표적과 그들의 불행을 지적하고 있다. 그 표적은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가 없는 삶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위치에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하고 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눅 13:3)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신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있는 삶의 하루는

첫째로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분이 내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듣는 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시작된다.

둘째로 한 낮의 생활은 새벽에 들려주신 음성을 음미하면서 주 안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어 사는 것이다.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렘 47:10).

세째로 하루의 마무리를 주께서 새벽에 들려 주신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또한 들려 주신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깨우침을 주셨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삶이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없는 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는 자도 없다. 그러나 접붙임이 있는 자의 삶에서 그 가능성과 그 당연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라고 말씀을 들려 주신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있는 삶은 그 성장함이 드러나게 되며 그러므로 성도된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이 주님을 뵈옵 때까지 계속되어야겠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4월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 4 호 통권 109호

1983년 4월호 차례

권두언 / 그리스도와 의 접붙임.....	부 장 · 2
이달의 말씀 /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됩니다.....	김창인 · 4
☐ 부활절특집 1.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새기며.....	한영철 · 6
2. 우리 주님 다시 사셨으니.....	조준상 · 8
☐ 이사야서 강해 ⑦ / 하나님의 초청.....	김창인 · 12
☐ 십계명 강해 ④.....	이종윤 · 15
☐ 특별연재 ① / 새성전 이사에 즈음하여.....	최 환 · 18
☐ 찬송가 해설 / 무덤에 머물러 예수내 구주.....	김창근 · 22
☐ 교사독백 /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정관호 · 23
☐ 개척교회 / 금현교회와 장병기 전도사.....	제 1 남전도회 · 26
☐ 기관소개 / 5 월은 충동원 전도의 달.....	전도위원회 · 27
☐ 교사일기.....	이성은 · 11
☐ 이달의 시 / 땀과 피.....	- 영 - · 11
☐ 그루터기 / 귀하고 가치있는 망합.....	편집실 · 17

선교사 · 선교지 소식.....	30	교회소식.....	32
이달의 교우동정.....	33	편집후기.....	34

표지해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
리라」

말씀하신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이다.

□ 이달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롬13: 11)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 됩시다

로마서

13장11-14절

이 세상에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올바르게 알고 그 때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1. 지금은 어느 때 입니까

(1) 지금은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살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편리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십세기 후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 죄악의 밤이 깊은 때입니다

●지금은 밤이 너무 깊어서 좌우가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 가다가는 손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놓고 믿을 수 없는 위태로운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윗 사람은 아랫 사람을 사랑하며 보호하고, 아랫 사람은 윗 사람에게 순종하고 책임에 충성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윗 사람은 호령만 하고 아랫 사람을 착취합니다. 아랫 사람은 아부하고 혹은 무조건 반항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불안에 쌓인 시대입니다. 신문을 보면 불안해지고 방송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3) 밤이 깊고 날이 가까와 오는 때입니다

이 시대는 밤이 깊은 것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재림하실 날이 가까와 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말세야』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 입니까? 무서운 멸망의 때가 이 지구 상에 사는 이들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왔다갔다 내왕하는 때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땅과 많은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한가지는 섞이지 않아야 할 것이 섞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가지 반대되는 무리가 섞이고 섞여서 혼란해지고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전쟁과 분위기는 마치 금방 심지에 불을 붙여 놓을 것만 같은 때입니다.

2.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13: 12)

(1) 어두움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왜 입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람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캄캄한 밤 중에 입던, 때 묻고 찢어진 옷을 밝은 낮에 입고 나오면 망신합니다. 벗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방탕과 술취할 때 입던 옷, 음란하고 호색할 때 입던 옷, 원수와쟁투할 때 입던 옷을 벗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 갈 때에 살던 생활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남녀관계의 더럽고 음란한 욕심 등 이러한 욕심들을 회개하여야 됩니다. 이 더러운 욕심의 때 묻은 옷을 입고는 신자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2)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의 옷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음 세가지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하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돌을 옮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허리의 띠를 단단히 띠고 일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오셔도 마중 나갈 수 있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세째로 언제 악한 마귀가 나를 습격해 와도 싸울 수 있는 십자가 병정의 무장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3) 이같이 신자가 입을 신령한 옷 세가지는 어떻게 입습니까

● 회개만 하고 간구만 하면 됩니다.

지난 죄를 회개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때 묻은 옷을 벗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깨끗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예복을 입혀 주셔서 신랑되신 예수님 마중 나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십자가 병정의 복장이 입혀 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가지 옷을 철 따라 입으시고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옷은 어떠한 옷을 입으셨던지 문제가 아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신령한 옷을 입으셨는가 하는 것 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짓과 외식과 욕심에 눈이 어두웠으나이다. 내 묵은 옷을 벗겨 주세요」하며 회개하므로써 예수님 앞에 위로를 받아 묵은 옷을 벗어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가지 옷을 입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 뵈옵고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새기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15절)



한 영철 목사

(성가부지도 심방부제 4지구 담당)

부활의 교리는 너무 고원심오하여서 인간의 두뇌로써는 설명하기에 너무도 어렵다.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서 알 수 있다. 곧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2 : 10-14).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1. 부활은 기독교의 최대의 근본적 교리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에는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아래에 정복을 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 선탄을 다 당케 하세므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속죄의 사역에는 사대원칙이 있으니

- ① 도덕적 원칙 : 타락된 인생을 감화시키는 원칙이다.
- ② 경제적 원칙 : 죄에 노예된 인생을 속량하는 원칙이다.
- ③ 율법적 원칙 : 사형선고 받은 인생을 무죄 방면하는 원칙이다.
- ④ 제사적 원칙 : 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원칙이다.

이러한 속죄의 원칙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인양성을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

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라」(롬 1 : - 4)고 하였다. 이 말씀은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결정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되고 또 부활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게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도 헛 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헛 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침륜할 것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중에 더욱 가련한 자가 될 것이요/ 세례를 받음이 무엇이며/ 어느 때든지 모험은 무엇 때문에 하며/ 맹수와 형틀에 순교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라.

하였다. 과연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의 목표이다.

2. 부활은 기독교신자의 명백한 체험이다.

이 속죄와 부활의 교리는 교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다.

죄와 허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죽은 인생이 마치 아론이 마른 지팡이를 성막안 법궤 앞에 두었다가 이를 날 내어보니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듯이 우리의 죽은 심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론만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므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도에 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상고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였다. 즉 체험이 아니면 공론에 불과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3. 부활은 기독교신자의 전도의 제목이다.

사도들의 전도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 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목격하였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 뵈고 음식도 같이 먹은 증인들이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묵상으로는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하루에 삼천명을 회개케 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설명할 수 없다. 스테반은 순교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증거하였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였고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다. 고로 부활은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는 것을 성경은 고지하고 있다.

4. 부활은 기독교신자의 최대의 소망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우리에게 있을 부활체의 영광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혈육이 아니요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 3장21절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죽음을 맛 보지 않고 영화하기를 갈망했다. 가혹한 죽음을 맛 보지 않고 주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즉 이 소망이야말로 기독교신자의 최대의 소망인 것이다. 완전한 생명 즉 이것은 부활체로써만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생명에 삼키운 바가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 : 55)고 담대히 승리의 개가를 외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이 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은 바가 된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도록 힘쓰며 살아야겠다.

우리 주님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삽니다



조 준상 목사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지도
총헌기도원 담임)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두가지 의문점인 동시에 반론(反論)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기록된대로 죽은자가운데서 부활하는것을아예 부정하는 이론과 35절에 기록된대로 만약 있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것이나 하는 회의적 부정론이다. 사실 이런 이론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얻고자 한다.

[1 : 그리스도 께서 다시 사신 증거는 1고전 15 : 1 - 11]

① 구약의 예언이다

3 절에 기록된 "성경대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란 말이다. 구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도 특히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사야 53장, 다니엘

서 9 : 26, 시편 22편, 스가랴 12 : 10과,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제물이 이를 말씀하고 있으며, 부활에 관해서는 호세아서 6 : 2, 이사야서 16 : 10, 11, 17 : 15 - 24, 53 : 10과 요나서 2 : 10이 바로 이를 예언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에 여러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

③ 예수 그리스도의 자증(自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손에 수난 당하시어 죽으셨다가 제삼일에 다시 살아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마16 : 21, 20 : 19, 요 10 : 18).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증거로 공생애 사역가운데서 친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다(회당장 아이로의 딸 : 막 5 : 21 - 23, 35 - 43, 베다니 나사로 요 11 : 1 - 44,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눅 7 : 11 - 17등이다).

③ 열한 사도들의 증언이다

제바에게(눅 24 : 34), 열한 제자에게(눅 24 : 33 - 39, 요 20 : 19, 26)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셨고, 그래서 각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누가는 그의 저서 사도행전 1 : 3에 말씀 하시길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사실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시었고』라고 하였다.

④ 오백여 형제들의 증언이다

마 28:16에 기록된 사건으로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에게 보이셨던 때에 보았던 많은 증인들을 의미한다. 또한 두 마리아(마 28:1, 9),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눅 24:13)와 주의 육신의 동생야고보(갈 1:19)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

⑤ 사도 바울의 증언이다

“만 나중에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본 것을 의미한다 (행전 9:3-8).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나 사역을 보더라도, 그리고 열한 제자와 오백여 형제의 증언이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나 안식일의 변경이나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고전 15:12-19)

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14)

바울이 전파한 것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전하는 것도 그리고 전한 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②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은 거짓장이요 사기꾼들이 될 수 밖에 없다(15).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 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선교와 믿음만이 헛것이 아니라 없는 부활을 있다고 전한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수 밖에 없다.

③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 수 밖에 없다(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부활에서 완성되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시지 않았다면 구속사역은 실패하였기에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다.

④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수 밖에

없다(18).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성도들도 그대로 망하고 말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이다.

[3]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면 우리는(15:20-34).

그 대답은 명백하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1-22 절에 말씀과 같이「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먼저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 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도 반드시 다시 살ान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를 말한다.

[4] 우리가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인가 (고전 15:35-49).

① 썩을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42).

현재의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수 밖에 없는 몸이다. 그러나 다시 사는 몸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다.

② 욕된것으로 심고 영광스런 것으로 다시 삽니다(43상).

현재의 몸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 잡혀 범죄할 수 밖에 없는 욕된 몸이지만, 다시사는 몸은 죄와는 상관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③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43하).

현재의 몸은 병들고 노쇠하고 넘어지면 깨어지고 자빠지면 부서지며 계절만 변하여도 병드는 몸이지만, 다시 살 때는 병들지 아니하고 시

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④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44).

현재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의 몸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즉 육의 몸은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지만 다시 부활하는 몸은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다.

이처럼 다시 살 때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약하여 지지 않고, 다시는 욕되지 아니하며 영생하며 강하며 영광스러우며 신령하며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5]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전 15 : 50 - 58).

① 혈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따라 사는 자가 되자(50).

그 이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겠기에 그렇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버리고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 받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

②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삶을 살자(55).

사망이 왜 왔으며 죽음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 사망과 죽음의 근원인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증거로 다시 살아 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다.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는 말씀을 믿기에 사도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는 죽을 때에 찬송을

부르며 이세상 떠나는 장례식에 찬송을 부르며 행하는 것도, 나아가서 땅에 묻힐 때도 소망 가운데 묻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③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을 살자(57) 여러가지 감사할 조건이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으리요 마는 특히 죽음과 사망에서 넉넉히 이김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죽을 사람 다시 살리셨고, 죽었던 자 다시 부활하게 하셨으니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할 일은 찬송 그대로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 하겠네를 부르며 사는 일 밖에 없다.

④ 주의 맡겨진 일에 더욱 더 힘쓰는 자가 되자(58)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어려움은 물론이지만 특히 죽음이나 사망 앞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생명 내걸고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바울의 결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바로 그 길만이 받은 은혜에 보답 감사하는 길이요, 우리 여생의 삶의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는 길이다. 나아가서 부활이 있기에 그 축복을 쟁취한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 사도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산다. 영광스런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는 혈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다시는 죽음과 사망의 종 노릇하며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맡겨진 주의 일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교사 일기」

〇〇년 〇월 〇일

오늘부터 분반공부를 시작할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하자고 했다.

S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을 두번 찾더니 그대로 얼버무린다. 개구장자들은 계속 킁킁 웃어 재킨다.

“선생님! 나는 기도시키지 마세요” 눈을 감고 있는 내게 B가 소근거린다.

그렇지만 안 시킬 수는 없어. 자꾸 시킬꺼야.

〇〇년 〇월 〇일

J가 기도를 외워 왔나보다. 1주일 동안 분명히 기도때문에 고민을 했을 테지.

밤에선 주룩 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 아~멘.”

아멘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 비가 오고 있는데 뭐가 좋은 날이나?”

우리반 돼지(?)가 하는 말이다.

툑툑 툑툑 소리와 함께

“넌 다음에 기도 얼마나 잘 하나 보자.”

아니지 비가 온다고 나쁜 날씨는 아니지.

〇〇년 〇월 〇일

어린이 예배 마치고 목정공원으로 놀러갔다.

정말 오랫동안 너희들과 노는구나.

준비해 온 우유랑 샌드위치를 차례대로 나누는데.....

“선생님, 우유는 먹기 싫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요.” O가 하는 말이다.

“오늘은 사 먹으면 안돼.”

“왜 안돼요?” 1학년 답지 않은 질문이다.

“나 돈 있어요. 엄마가 교회에서 늦게 끝났다고 짜장면 사 먹으랬어요.”

“오늘은 주일이잖아...”

A와 N이가 오늘 놀러 간다고 했는데...

주일의 개념이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심어져야 할텐데...

-은-

❖ 이달의 시 ❖

땀과 피



땀약 별 밑 들녘

굵은 땀 방울을 받아

가시 돋혔나

어느 덧 별빛의 겹세마네

핏방울 흙속에 스며

한떨기 기도의 꽃을 피웠네

고독한 마음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호흡소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연한

그리고 청초한 꽃잎에

굵은 가시 박혀

구원의 열매 맺혔네

- 영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7)

사 1 : 18 - 20

하나님의 초청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 : 18)

이사야 1장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청해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홀륭하신 분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대접도 좋습니다. 일도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1. 우리를 청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1) 부귀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산이 한없이 많으신 부자입니다. 지구덩이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말하기를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등기를 법니다. 그리고 등기서류는 금고에 넣어 놓고는 70만평 땅이 있고 돈이 79억 있다고 뽐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죽는 시간에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기 때

문입니다. 여관인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잠간 위임을 맡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대로 놓고 홀 몸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주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인간은 잠시잠간 하나님의 위임을 맡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2) 사랑과 자비가 지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살인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영접해 주시는 자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지 않으시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 뻘뻘스레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3)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열번 참으시고 백번 참으시다
가도 참는 한도에 이르도록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 때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사람 노릇을 해야지만 일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떨어지고 나면 잘 나고 강한 자가 없습니다. 갈빗대가 부러지고 머리가 바스러집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2.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청해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홀륭하신 분인데 청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데기끼리 비교해 보면 조금 큰 놈 작은 놈이 있으나 사람이 구데기를 볼 때에는 침을 뱉는 것처럼 인간끼리는 잘 났다 못 났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데기같이 더럽고 하루살이 같이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몇 가지로 살펴 봅시다.

(1) 갈대와 같이 정함이 없고 지조가 없는 인생입니다

갈대가 바람 부는대로 꾸벅꾸벅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세력있는 사람 앞에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그저 인정에 끌리고 세력에 끌려서 아무 정함도 지조도 없이 되는데로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2) 개인주의로 눈이 어두운 인생입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집에 돈만 많아지면 그만이다' 하는 개인주의가 있는데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백성의 재산은 일전도 남지 않고 다 없어 지건만 나라를 망치면서 까지 개인의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돈을 모은다고 애를 쓰며 벌 수작을 다 하면서 나라를 팔아 먹어서 나라가 망하면 그 사람들이 쌓아 놓았던 돈이 그 이튿날 어디에 갑니까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3) 악인 줄을 모르고 범하는 바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골치덩어리 노릇을 하면서도 제가 잘났다고 교만합니다. 못된 짓을 하여 망할 합정을 파면서도 잘났다고 뽐을 냅니다. 악인 줄을 모르고

행하면서 오히려 교만하고 망할 줄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인생들입니다.

(4) 악인 줄 알고도 떠나지 못하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도덕질 하면 안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악인 줄 알고 망할 줄 알고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안타까운 인간을 하나님은 칭하셨습니다.

(5)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몸은 풀과 같이 약하고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고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생명은 풀 끝에 이슬처럼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시면서 칭하여주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신 것은 '이놈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어' 심문하시고 때리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칭해 주십니다.

도덕질하던 죄, 음란하던 죄, 사람을 죽이던 죄, 우상숭배하던 죄... 무슨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난 죄는 사함받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년 범한 죄,

50년 범한 죄 70년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 새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칭하십니다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다음에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되고』 찍어진 것을 좋아 하더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집을 좋아 하더니 예배당에 와서 울고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짝패로 싸움질을 좋아하더니 선한 일에 땀을 쏟으며 노동을 좋아 합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칭해 주십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지난 죄는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옥으로 가던 죄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악마의 앞잡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용장이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방법이 달라지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3)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가.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었지만 용서함을 받은 시간에 죄악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자유인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자유를 주십니다.

나.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실뿐 아니라 하나님

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평안합니다. 전쟁없는 평안, 실패가 없는 평안과 원수가 손 못대는 피난처에 사는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돈에 팔려 다니는 물건이 아니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못 가집니다. 평안은 세력의 앞잡이로 끌려 다니는 포로가 아니므로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청해 주셨습니다.

다. 땅위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요」하신 물질을 주십니다. 땅에 사는 동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택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줄 것이 생깁니다. 아니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천국의 복이 땅 위에서 시작하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총 속에 삽니다.

4.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못나고 더럽고 반역하던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청해 주시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1) 궁핍을 당합니다

육신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영혼

은 사막이고 영혼에는 지옥의 불이 화끈화끈 붙어서 영혼에 괴로움이 꼭 차면서 육신도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저주를 받아 궁핍이 옵니다.

(2)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하면 칼에 삼키웁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라」(사 1 : 20)

너무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는 전쟁의 소모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니까? 병드는 것도 무섭고 불 붙는 것도 무섭고 홍수도 무섭고... 다 무섭지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당해 봤읍니다.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전쟁은 네 가지가 꼭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재산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집도 불 타고 재산도 없어 집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죽습니다. 푹푹하던 사람들도 죽습니다.

세째로 남은 사람들은 병 듭니다. 신경이 놀라고 마음이 안타까와 속을 썩이다가 미치광이가 되고 육신에 병이 듭니다.

네째로 문란입니다. 전부 문란해 집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없게 됩니다. 전쟁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전쟁 뒤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백성에게 임합니다.

(3) 지옥에서 영육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절하던 자는 결국 육신도 영혼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란 말은 평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지옥! 반면에 불 붙는 지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청해 주시는 은총을 거절해야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건만 왜 점점 더 멀리 갑니까. 탕자가 잘난 것 같아도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고생입니다. 양이 잘난 것 같아도 목자를 떠나 세멋대로 한다는 것이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듣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고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듣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고생의 함정을 파는 것 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청하시는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고생해서 마땅합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여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분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멸망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십 계 명

〈출20 : 8 - 11〉

제 4 계명

오늘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급성장과 함께,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로해 지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리를 분간치 못하게 되면 어려운 중에 빠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출애굽기 20장11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하셨는데 이 복된 안식일이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나고 질문하면 대개는 건강·재물·명예 그리고 필요한 권력 등을 말한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을 가지고는 행복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축점을 두어야 할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에는 세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안식일의 패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 종교와 여러가지의 종교를 다 연구해 본다 할지라



이 종운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

도 그들 종교 가운데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다. 타 종교들은 자기의 교주가 탄생한 날을 지키는 공휴일은 있는지 모르나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법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의 개념이 타 종교에 없는 이유는 다른 종교에는 창조신학이나 창조에 대한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안식의 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레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과 「안식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안식을 약속하시는 「천국의 약속」인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제7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되 6년을 농사 지은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도 안식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90년 동안 한번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을 점령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에도 땅을 일구어 먹은 댓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간을 생활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원리를 인간들이 준행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고 마신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둘째 안식일의 패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다.

신명기 5장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과 같이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터 너희를 건져 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인 출애굽 사건의 뜻은 무엇인가?

① 출애굽은 죽음에서 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요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온 참 출애굽의 날이다.

② 애굽의 종 되었던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얻은 날이다.

③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건이다. 애굽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의 모형의 땅으로 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 주신다. 이 부르심에 따라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죄악에 매였던 사슬을 풀어 주시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니 이 날이야말로 복된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날이라는 말이다.

세째, 안식일의 세번째 패턴은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 신약성경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어 지고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아침 새벽이었고.

②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으며.

③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활의 날이요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요 교회가 시작한 날이 주일이라면 이 주일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요 이 날은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표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 용서 함을 받은 기쁨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념하며 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면

첫째로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둘째로 주일에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로에 지친 우리의 영혼과 심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여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세째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이며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그런고로 안식일이 된 이 거룩한 주일이야말로 참 용서의 날·회복의 날·은혜로 중생케 된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날인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곧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니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라는 면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날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주일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써 나 자신이 나오며 즐거워 하므로써 감사가 넘치는 것이 곧 예배요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인가? 그것은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제 4 계명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말씀에는 「옛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은 옛새도 힘써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한 가지도 없다. 특히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 할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중생함이 없이는 자기 책임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참 정성과 성실을 가지고 힘써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의 미래적 사건의 예표이다.

창조에서 부터, 출애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과거 사건에 기초를 둔 안식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적 사건의 예표가 곧 안식이라는 말이다.

둘째로 안식 사상을 가진 개인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

룻기 3장 1절에 나오미가 그의 자부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주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서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킬 수도 있으나 특별히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을 주 안에서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날은 하나님 지식 즉 그 말씀의 지식이 성장하는 날이다.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계약 관계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는 안식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된 그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부터 참 위로와 은혜를 받는 복된 날이 되리니 이 날을 구별되어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백성이 되며, 이날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날인 것이다.

□ 그루터기

귀하고 가치 있는 망함.

어느 성도가 전세금을 빼내어 삭월세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세금 전부를 건축현금으로 드렸더니

이브가 「당신은 예수를 잘 믿는가 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망하니 그게 어디 잘 믿는거요」하며 나무란다.

그러자 그 성도는 태연히 대답했다.

『세상에는 망하는 길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화재를 당하고 수해를 만나서 망하는 등의 천재지변으로 망하는 것과 도둑 맞아 망하는 것과 병들어 망하는 것과 사고를 당해 망하는 것과 주책잡기로 가산을 탕진해 망하는 것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망하는 일도 있는데

성전을 짓느라고 망했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는 망함이겠습니까.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남아 있으니 어찌 망함이겠습니까』



1978년 5월 25일기공예배광경



본당과 지하주차장 바닥을 연결하여 콘크리트 작업광경

1. 이제까지 공사의 경과보고

새성전 현장에서 최 환 집사

1. 새성전 이사에 따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새성전 건축공사는 오늘도 쉬지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함마소리, 파이프 운반하는 소리, 모타소리, 감독기사들의 지휘하는 외침소리로 공사현장은 떠들썩하다. 우리들의 배후의 기도함에 이 소리들도 기도소리가 되어 들리는 듯하다.

여기에 우리 총현의 성도들이 이사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몇개의 제목을 부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대목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금까지의 공사한 내용에 대한 소개와 보고,

둘째 새성전에 설치되는 장비및 설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셋째 성전이 완성되었을때 관리의 인적 구성

과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금까지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이제까지의 성전건축

여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1970. 12. 30 당시 성동구 소재로 되어있는 잡종지 9,000평을 매입하고 매입한 대지를 문화공보부에 종교용 대지로 확인을 받았으나 1975년 12월서울시에서 영동개발 구역정리를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부지로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로 수차례 걸쳐서 서울시와 청와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책정했다는 것이 무당하다고 진정했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당시의 서울시장과 면담을 했으며, 그후에도 건축위원장님과 그 밖에 위원들이 수없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방문하고 해제가 될 때까지 매달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배후에는 모든 성도의 끊임 없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

비로소 1977년 8월30일 대지가 풀리기 시작했다.



완성되어 가는 본당

1978년 1월 건축설계와 건축양식에 대해서 당회에서 논의한바 고딕과 같이 현대건축 양식이 아닌 중세건축양식으로 설계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획설계 부터 시작하자고 결의했다.

1978년 5월25일 기공예배를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로 현 새성전 부지에서 일반성도 약 1,200명이 모여서 드렸고 여기에서 새성전건축 역사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1978년 8월22일 새성전 대지정지 허가가 나와서 대지정지 할 것을 서두르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성전건축용으로 가설 사무실 짓기로 건축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약 100여명에 가건물과 전기 외선공사도 끝내어 본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선교센터 골조 완성된 모습

성전건축을 하기위한 대지정지공사와 지하수 개발공사를 1978년 12월 23일 정지공사가 완료함과 동시에 개발하고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본재료 자갈 760트럭(4,560M³) 모래 510트럭(3,060M³) 철근 1,001톤을 1979년 2월 30일까지 준비를 완료했으며, 한편으로는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있던 중 1979년 5월 경제정책및 자재파동으로 건축허가 억제대상(고층빌딩, 50평 이상의 주택 공공건축물, 종교건축 1,000평이상)에 걸려서 건축허가 제출을 하지 못했으나, 어쨌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필요하여 놓고 있었던바.

여러 각도로 건축허가 하여 줄 것을 청원 하였으나 종교건축물 1,000평 이상은 억제대상이라고 허가서류조차 받아주질 않았다.



교육관 골조 완성된 모습

◎ 하나님께서는 선환일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하면 헛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기적적인 사실을 총회의 새성전을 통해서 실증하여 주셨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1979년 6월부터는 더욱 더 성전건축을 위해 집중적으로 새벽



본당공사 작업광경

기도회 때부터 저녁 철야기도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본당에서는 본당대로, 새성전에도 가설사무실에 예배실을 만들고 1979년 5월 13일부터 정 상우 목사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매일같이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노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에 장봉순 집사도 열심히 수종을 드셨고 주위에 살고 계시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매일 철야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원은 기도원대로 성전건축허가를 얻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치지를 않았다.

이에 힘입어 현장에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건축시공설계를 철야를 해가며 300~500매가 넘는 설계를 계속 진행하였다. 시공설계가 거의 완성될 무렵인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령이 유고 하셨다는 발표가 나고 정국은 어수선했다.

이 때에도 충현에 성도들은 쉬지않고 기도에 힘쓰고 있던 중 1979년 11월 30일 모든 건축

계의 해제발표가 공고 됨과 동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 하였던 것이다.

1980년 2월 14일 바라고 바라던 건축허가가 나왔다.

1980년 4월 6일 정우개발주식회사와 1차공사를 체결하고

1980년 4월 8일 성도들 약 1,200명이 참석하여 착공예배를 성대히 드렸고

1980년 4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본당, 교육관, 선교센터부분의 지하실을 위해 땅을 파헤치고 특히 본당의 지하실은 전체가 암반으로 깔려져 있어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자만 으론 파지지 않았다.

연약한 지반은 기초를 보충하고 암반이 있는 곳은 다이내마이트로 터트려 파고 지하실을 설치하기도 하여 1,0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튼튼하게 공사에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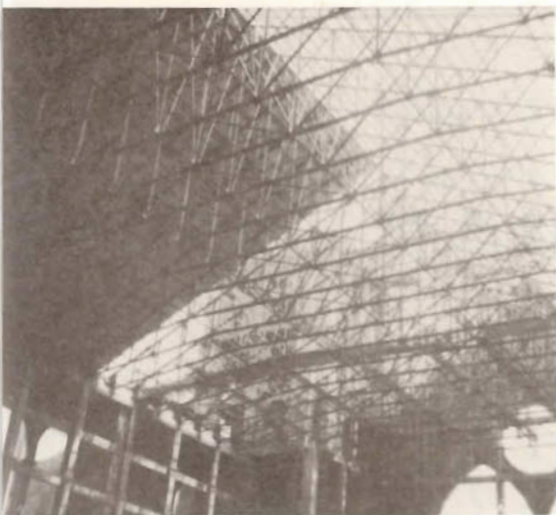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일반 건축



교육관 외부미장 공사하기 위한 발판 작업완료



교육관 내부에 벽돌쌓고있는 광경



본당 절골공사 작업광경

물과는 달리 난공사였다.

그러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큰 사고가 없었다.

동관지붕까지 완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동안 사용된 자재만 보더라도 대단한 수량이 소요되었으며 총동원 노동자수만 보더라도 68,484인이 동원이 되었다. 지면상으로 골조공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만 줄이기로 한다.

1982년 9월 30일 부터 1982년 10월 8일까지 제 2 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는 남도건설주식회사에, 설비(냉난방 급배수 위생공사)는 남양설비주식회사에, 전기공사(약전, 강전)는 한원전기주식회사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가 일제히 공사 착공을 하여서 공사완료는 1983년 7월 30일이면 계약된 공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차공사에서 건축공사는, 교육관·선교센타를 완공하고 우선 9월 첫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본당 중강당을 가설로 완료하게 된다.

설비공사는 교육관의 난방공사의 완료는 물론 선교센타도 완료되었고 본당은 전체 배관공사와 지하주차장의 전체 배관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기공사는 교육관 선교센타 완료는 물론 본당이나 지하주차장 배관공사완료, 배선공사 완료로 되어있어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의 완료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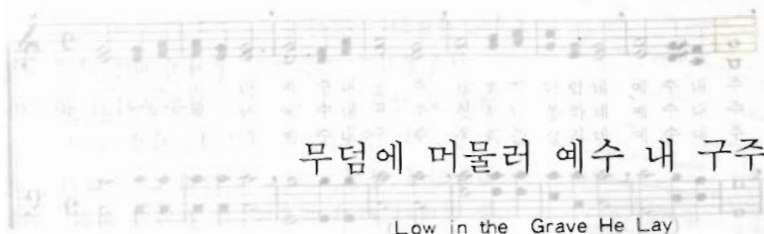
건축공사중 벽돌쌓기 공사가 80%이상, 알미늄문및 창문공사가 80%, 철문공사가 80%미장, 도장공사, 유리공사 마무리공사를 이제남은 3개월동안에 완성을 해야 하는데 좀 서둘러서 공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각 종목의 여러 기능공들이 건물전체에 분산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상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요망사항은, 7월 중순부터는 서서히 이사 준비를 완료하고 이사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여러 분야에 수백명의 인원이 박차를 가해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많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한 전기를 사용하는 일, 높은곳에 매달려 일하는 것, 무거운 재료를 운반하여 불이고 매어다는 일, 이러한 일들은 골조공사때보다도 10배나 더 위험이 뒤 따른다. 물론 이에 대비하여서 안전공사도 철저히 하겠지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더 큰 위험중에서도 안전하게 일을 할 줄 믿사오니 총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실 내부공사 모습



(새 171 합 132)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에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으나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 뿐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1회뿐인 부활이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하는 일이 모두 헛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신지 사흘만인 주일 아

침에 부활하셨다.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만을 보았으며 그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저희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셨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지하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부활을 막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한 죄의 권세는 주님의 뒤를 이어 계속 부활 할 성도들의 부활도 막을 수 없다.

이 찬송을 작시 작곡한 로버트 로우리 (Robert Lowry) 박사는 침례교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펜실버

니아주 버크넬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다.

40세 이전에는 작시나 작곡한 것이 없었는데 늦게 시작하여 주옥같은 많은 찬송을 작시 작곡하였다.

1868년 윌리엄 톤 (William H. Doane)과 함께 많은 찬송가와 주일학교 찬송집을 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한 이 찬송은 1874년에 작시 작곡한 것인데 록 24: 6 절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에 기초한 것이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성이요 장엄한 개신가인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 관호 전도사

(직장청소년부)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요한 웨슬레(John Wesley)라는 인물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는 어려서 부터 훌륭하고 엄격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를 나온 매사에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때때로 여가를 이용하여 감옥에 있는 죄수를 방문하여 위로도 하고 전도도 하였으며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의 열마를 떼어 불쌍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는 전도와 구제사업에 더 큰 열심을 내고자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조지아주로 갔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더 큰 실패감을 얻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노예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서두부터 웨슬레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나 자신이 직장청소년부(전 산업전도 교육부) 교사생활의 시작과 웨슬레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흡사한 면이 있는 듯 하였기 때문이다.

- 직장청소년부 교사생활의 시작 -

비록 남만큼 배우지는 못하였고 소외 당하고 있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기를 원하는 직장청소년들을 위해 몇명의 대학친구들과 함께 야간중학교를 열고 그들에게 약 2년간 가르친 적이있었다. 또한 대학시절의 전공이 경제학이라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의 실태와 악에도 관심을 두었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열심히 생각도 해 보았다.

결국 나는 다른 부서보다 직장청소년부의 교사를 자원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스스로 직장청소년부의 교사로서 책임자라고 자궁했으나 이러한 자만심은 얼마되지 않아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너무 과신한 탓이었다.

- 무관심이 빚은 참극 -

직장청소년부에서 처음 맡게된 일은 새가족(신입회원)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이었다. 새가족회원들은 교회생활을 처음하는 직장청소년들이라 「교회」자체를 매우 어색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직장으로 엽서와 편지를 보내고 때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도 걸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은 스스로의 자만심과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인위적인 열심은 얼마안되어서 식어 버리고 피곤감과 나태만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몇주일이 지나자 10여명의 새가족 회원들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나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 깨닫게 되었다. 「사랑이 없는 인위적인 열심과 무관심이 빚은 참극을 보기 좋게 해냈구나...」

- 교사가 은사도 재력도 없을 때 -

충현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내에서 수고하시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충이 있듯이 우리 부서도 문제가 있으나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최병식이라는 친구가 함께 교사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다. 나의 반에서 최병식선생반으로 등반한 양 ○○라는 회원이 어느 주일 아침 내게 찾아왔다. 그는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도 매우 열심이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한 쪽 귀에 염증이 생겨서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할 비용은 없고 해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후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회원의 염증은 더욱 악화만 되어 갔다. 결국 나는 동료교사들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논하였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든지 아니면 수술비를 내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보유해야 교사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동료교사의 안타까운 독백이 있었다.

다행히도 먼 천척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수술비와 임원비를 대주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능력이 없는 교사로서의 눈 앞이 캄캄했던 한 때가 지나간 것이다. 이 한 문제의 해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 연기 아닌 실제의 삶을 보여준 부활절 연극 -

금년 부활절 때 우리 부서에서는 「찰스 미쉬」 원작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였다. 극본만 빼고 연출·효과와 분장까지 모두 회원들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이 연극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제자 중 제 6번째 제자

가 40kg이상이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의 삶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교사와 회원 할 것 없이 모두 몽클한 감격과 감동을 느꼈다.

때때로 우리 회원들은 자기 자신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 괴로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환경과 불안한 미래를 내어다 보며 안타까와 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면서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의 정을 가진 우리 교사들은 그들이 무엇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위로함을 받고 기뻐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궂은 일, 잦은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성실성을 배운다. 우리보다 더욱 진도에 열심인 그들로 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회원들은 서로 삶을 공유함으로 함께 배우게 된다.

- 교사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

예수님은 그의 지상사역 초기에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 : 18-19).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이 실제로 이와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게 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의존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학식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령은 가난해지기 어렵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곧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이 많진 적진, 지식이 많고 적진, 권세가 있진 없진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불우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 신간안내

스가랴주석

성경 주석으로서 본서는 그 첫 판이 나온 이래 아직도 시대에 뒤지지 않았으며, 혹 언어학적 진보가 약간은 있었다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을 말하면 일반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학문과 경전을 겸한 스가랴 주석서가 여태까지 한권도 나오지 않았다. 주석가로서 무어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를 가르치신 은사인 알렉산더(J. Alexander) 박사의 주해 능력을 많이 이어 받았으며 모든 진전한 주해에 첫째 가는 필수조건인 깊은 경

토마스 무어지음
윤영탁 옮김

건심이 퓨리탄 저자들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저작에서도 두드러진다. 스펔존(C. H. Spurgeon)은 무어의 저작의 가치를 최고의 표현으로 요약하여 '으뜸가는 책'이라고 하였으며, '목회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책'이라

고 극찬하였다. 그와 같은 주석가들을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본서를 추천하는 첫번째 이유가 그것이 독자를 성경 속으로 깊숙히 인도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두번째 이유는 본서가 오늘날의 기독교회 상태에 더할 나위없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 어느 책도 이 스가랴서보다 우리의 현실 상황을 올바른 방법으로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80미색모조 254면 3,800원 정음출판사

금현교회와 장병기 전도사



장 병기전도사

75년 1월부터 남전도회가 지원하던 금현교회에 단단한 성령의 사람 장병기 전도사님이 농촌 복음화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다. 장 전도사님은 그 동안 본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던 열성을 가지고 도회지를 떠나 여주 땅에서 그 곳 주민들을 향하여 복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지난 달 20일에 부임예배를 드렸는데 사회에 회장 이응선 장로(제 1 남전도회) 기도예 중경회장 한명옥 장로 성가에 금현교회 어린이 설교에 장정일 목사(살전 1 : 2 - 7) 봉헌 감사기도에 고문 우성원 장로 이외에 여러 임원들과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다.

예배 후에는 떡과 국수와 약수물을 들면서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주의 부르심을 입고서 그 부르심에 응하여 물 설고 낮 설은 곳에서 고생하실 장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과 성도들의 위로가 계속있어야겠다.

금현교회의 주소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용리 298-2>이다.

5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5월은 우리 총현교회의 『총동원 전도의 달』로써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를 위한 일련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주제성구: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주제찬송: 새544장(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1. 목 표: 총동원전도를 통한 각 구역과 각 부의 질적, 양적 성장

2. 표 어: 구원은 오직 예수

3. 전도기간: 1983년 4월~5월

1) 4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집중기도 및 태신자 명단 제출

2) 5월: 태신자 데려오기 운동기간

① 5월 15일: 총동원 전도주일

② 5월 29일: 새 신자 환영회

4. 전도방법

1) 태신자전도: 믿음과 기도로 잉태한 전도대상자를 위한 집중기도와 교회로 인도

2) 축호전도: 구역확장원 중심의 심방전도(4~5월)

3) 노방전도: 전 교인과 주교 각 부에서 기획 실시

4) 학원전도: 중등부·고등부·대학부에서 기획 실시

5) 병원전도: 성가대 중심의 병원전도및 개인 전도 실시

6) 개인전도: 전도대원 모두가 한 번 이상 실시

7) 문서전도: 태신자와 결신자를 대상으로 한 총동원 전도의 후속처리 방법

5. 전도열 고취 방법

1) 설교를 통하여

2) 기도를 통하여

3) 홍보를 통하여

6. 사후처리 방안

1) 5월중 새 신자 접수 및 환영

2) 5월 29일 주일 저녁 예배후 새신자 환영회

3) 구역 전도 요원이 태신자 카드를 보관 돌보게 한다

4) 태신자 및 결신자에게 10단계 문서 전도 실시

7. 구역전도대 심방전도 실시

1) 때 : 1차: 5월 첫째주 지난 금요일(5월 6일)

2차: 5월 둘째주 지난 금요일(5월 13일)

3차: 5월 셋째주 지난 금요일(5월 20일)

4차: 5월 넷째주 지난 금요일(5월 27일)

2) 방법:

① 구역 권찰은 매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진후 성도들 가정을 심방하고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심방 전도를 실시한다.

② 일반 구역원(성도)은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역 전도대와 함께 태신자 심방 전도에 참여한다.

총동원 인도대회 조직

대회장 : 김 창인 목사

협의	예배위원장, 전도위원장, 심방위원장, 교육위원장, 재정위원장, 총무국장, 성경학원원감
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장 정일 목사

분과	업 무	위 원
기획 분과	기획, 훈련, 육성 사후처리	전도위교역자지원 교회성장분과
동원 분과	훈련대원및 전교인동원 참여촉구	특수, 내지, 외지 분과 전도위원 정원
안내 분과	홍보, 안내, 접대	남·여 전도회 임원

주일학교 전도대

성가대 전도대

구역전도대

부서명	지 도	대 장	부대장	대 원
영아부	정소영	정광호	부지도 교감	전교사및 학생
유치부	정연희	최상규	"	"
어새부	김양래	서동석	"	"
유년부	김연이	최성현	"	"
초등부	이양우	강은원	"	"
중등부	이원길	김은호	"	"
고등부	안석렬	윤인현	"	"
대학부	허충욱	김광신	"	"
청년부	김수성	하대선	"	"
장새부	구명신	송기홍	"	"
세례부	이성근	박인세	"	"
장년부	김희보	최대원	"	"
소망부	조영길	강모용	"	"
직청부	박동실	오정현	"	"
선교부	유국남	남선우	"	"
새가정부	윤영택	엄필성	"	"

제 1 성가대
제 2 성가대
제 3 성가대
여성성가대
선교성가대

지구명	지 도	대 장	대 원
제 1 지구	조영길 정복인	각협력구역 담당장로	구역담당권사 권찰 전원
제 2 지구	김창근 현정남	(협력구역별)	"
제 3 지구	김원남 최순복	"	"
제 4 지구	한영철 구명신	"	"
제 5 지구	이세열 김순옥	"	"

(8) 전도대원 훈련시간표

일 시	훈 련 과 목	시 간	강 사	훈 련 대 상
5 월 9일(월) 오후 7시30분	개강예배	70 분	김창인 목사	전주교교사및 성가대원
	전도자의 자세및 사명			전구역전도대원
	전도전략	50 분	장정일 목사	"
5 월10일(화) 오후 7시30분	전도자료 사용법	120분	이양우 목사	전구역 전도대원
5 월11일(수) 오전10시	생활속의 전도	60 분	박동실 목사	"
	반대의견 다루는법	60 분	이양우 목사	"
5 월12일(목) 오후 7시30분	새신자 양육	60 분	조영길 목사	"
	파송예배	60 분	김원남 목사	"
5 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성공적인 개인전도	120분	이양우 목사	전주교교사및 성가대원

명심사항

- ① 전구역 전도대원(구역담당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구역원)은, 월·화·수·목요일 4일간 훈련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② 전 주교교사와 성가대원은 월·금요일 2일간 훈련에 참석하여야 됩니다.

“은 가족을 위한 강단”
“치장의 성경교실”

생명의 말씀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안내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와 군문에서

현대인은 누구나 시간에 쫓기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도 자지않고
식사를 건너뛰고 거를 수야 없지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 이웃의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 하답니다.

아무리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권합니다.

충현교회 성경연구원에서
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설교집과

성경통신강좌를 이용해 보세요.

현재보급중인 카세트테이프 안내

□ 설 교

1. 김창인 목사
 2. 김희보 목사
 3. 윤영탁 목사
 4. 신성중 목사
 5. 이성근 목사
 6. 이종운 목사
- 외 다수 부목사의 설교

□ 성경통신강좌

1. 로마서(신성중 목사)
2. 욥기(김희보 목사)
3. 호세아(김희보 목사)
4. 학개·말리기(김희보 목사)
5. 이사야 53장(윤영탁 목사)
6. 신구약개설(이종운 목사)

□ 특강 및 신학강좌

목회 전반에 걸친 특강 및 신
학강좌 테이프 다수

*특별히 1963년도 김창인 목사
님의 설교 6편을 선정하여 아
름다운 케이스에 담아 선물용
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값 2,500원)

보급가격: 6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500원

9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700원

구입문의나 신청은: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 274-2171~4 충현성경연구원

충현교회성경연구원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벨기에

-김 성 완선교사

뉴욕에서 고 해순선생이 오셔서 뜨거운 봉사와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가 부흥되어 기뻐하시고, 성경공부도 계속 부흥중이다.

(1) 교회의 양적 부흥과 함께 질적 부흥도 크게 기대됨.

(2)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됨을 감사하시고 실기시험만 남았음.

(3) 유 철환집사 장립하고 성례식을 부활절에 갖도록 준비 중임.

(4) 모친 소천 직전이란 위급한 상황으로 미국에 다녀오실 예정이니 특별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하심

② 교회의 부흥과 양적 질적 면에서의 성장과 발전

③ 계획하시는 선교사역의 형통

○서독

-육 호 기선교사

환갑축하예배를 불신자 전도의 좋은 기회로 쓰시고 설교가 요약된 주보를 전도지로 사용하며 출석치 못한 성도들에게 발송하신다.

(1) 성가대 까운 20벌을 서울에 주문해 오심.

(2) 독일 전역에 전염성 감기가 유행하여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고생 중, 또한 수술한 성도를 위해 환자심방을 하심.

(3) 캄프-리트포트에서 주유럽 총회선교사협의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육 호기선교사, 서기에 윤 회원선교사가 피선, 김 성완선교사 외에 총회선교사가 다 참석하여 담화와 교제.

(4) 평택제일교회가 김을 선물함. 필리핀 박 병수선교사, 파키스탄 정 성균선교사, 태국 송 회춘선교사, 런던 김 북경목사님등과 소식을 교류.

(5)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장 경두목사를 모시고 평신도수양회를 개최

(6) 건강관계로 뷔츠브룩 한인교회의 예배를 걸렸으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은 변함이 없고 새신자 부흥.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도.

② 한인교회의 부흥 발전과 독일인및 미군 가족 선교의 확장.

○미 국

-라성충현교회

교회 표어및 성구를 본교회와 동일하게 정하기로 온교회가 의

견을 같이하여 주보에 사용하다.

(1) 당회와 제직회의 기능을 갖는 교회운영위원회의 세부조직과 부서 책임자를 임명하여 조직 교회로 출범.

(2) 주교교사 5명, 성가대원 20명을 임명.

(3) 주일 낮설교는 윤 형철목사가, 주일 저녁과 삼일기도회는 김영희목사가 담당하고, 대학부와 고등부 지도는 윤목사님, 주일 장년 성경공부는 김 목사님이 각각 맡아 수고하고 계심.

[기도제목]

① 학업과 함께 목회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의 학업 증진과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충만을 위해

② 교회의 이전을 위한 성전 마련과 준비를 위해.

③ 라성 충현교회가 세계선교의 진진 기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④ 지교회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남녀 종들과 성도를 위해

○미 국

-김 영 휘목사

라성 충현교회의 자세한 소식과 함께 선교회원및 임역원 여러분과 성도들께 문안 편지를 주시다.

(1) 3월 13~4월 10일까지를 총동원 전도의 달로 삼고 배가운 동에 진력, 현재 전도대원 41명 등록 및 훈련, 4월 10일에는 새 신자 환영예배 및 파티를 가질 계획이다.

(2) 3월 20일 성례식을 위한 학습, 세례, 입교문답이 있고 3월 27일에 춘계 성례식을 가짐.

[기도제목]

- ① 김 영희목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
- ② 목사님의 교회 봉사에 영력충만과 큰 열매위해

○인도네시아

- 서만 수선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관 대지가 자카르타 신설 국제공항로에 인접한 약 1,620평 대지로 확정됨.

(1) 현지인 교회 서부 자바교단의 빠르니아가나교회에서 3월 6일 집회, 한인성가대가 동원되어 함께 은혜를 나눔.

(2) 그동안 금지되었던 한글성경 수입이 재개되어 복잡한 통관 절차와 상당액의 세금도 불구하고 100권이 통과되었음.

(3)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부 자바 솔로에서 개최 예정, 강사는 미국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에서 지무하는 임택권 목사님임

(4) 오지사역에서 장년 31명, 어린이 5명 결신, 33명에게 세례를 줌.

[기도제목]

- ① 한글성경을 통관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선교관 대지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2) 현지 사역자세미나, 오지사역 결심 및 세례자의 신앙 보존과 더욱 풍성한 열매를 위해.

(3) 현지인 교회와의 선교협력 강화.

○인도

- 엘리야 겔간선교사

[기도제목]

- ① 사모님과 앤디의 건강을 위하여
- ② 카길지역의 선교사역 시작을 위하여
- ③ 인도의 동역자를 위해.

○일본

- 유병 세평신도선교사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하시는 사역에 성령충만하사기를
- ② 어렵고 위험한 길을 다닐 때 주님이 지켜 주시길
- ③ 충현의 성도님들께 배후기도를 부탁함

○애굽

- 이준 교선교사

[기도제목]

- ① 애굽의 선교와 카이로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 ②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 특히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 교육을 위해.

○파라과이

- 김재 창선교사

[기도제목]

- ① 사모님과 가족의 건강 및 자녀 교육을 위해.
- ②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원주민 선교를 위해.
- ③ 교회의 부흥과 증축을 위해

(4) 원주민 선교를 위해

○칠레

- 유재 일선교사

[기도제목]

- ① 칠레의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구입을 위해
- ③ 가족의 건강과 칠레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해
- ③ 칠레 선교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를 위해

○본부소식

(1) 의료선교사 초빙 광고를 기독교선보 및 크리스찬신문에 게재.

(2) 선교사 및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현신기도회를 4월 3일 부활절을 기하여 유년부일로 옮기고 선교지역 분과별로 합심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부흥 중이다. 충현 세계선교회 회원 및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4) 선교 현신기도회와 함께 세계선교세미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훈련 과정을 설립하고 4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5) 4월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 새벽 6시까지 선교실행위원회 세미나를 아세아 연합신학원 게스트 하우스에서 개최 예정.

(6)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제 하에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미국 시카고 인근 휘튼대학에서 열리는 휘튼 '83선교대회에 당회장님께서 제1분과의 발제 강연자로 초청 받으셔서 강연문과 "이것이 충현이다"(소책자) 외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고자는 이 중용 목사, 평가자는 노 봉린박사이시다.



□ 학습·세례문답 및 세례식

3월 24·25양일간에 걸쳐서 학습 및 세례 문답이 있은후 오후에 세례식이 있었다.

학습 및 세례받은 인원은 다음과 같다.

학 습 107명
유아세례 47명
세례 68명
입교 13명
개종 2명

계 237명

□ 성찬식

3월 27일 본 교회당에서 대배시에 성찬예식이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 고난주간 부흥집회

3월 24일 저녁부터 4월 1일 새벽까지 총현기도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경건한 집회를 갖었다. 강사는 조준상 목사

□ 인사이동

□ 성가대

① 임명

제 1 성가대 - 김정숙(엘토) 공정화(엘토)

대학부성가대 - 권미정 김미옥

염혜원 손소영

홍영신 김미자

김경희 지숙자

김영희 이상

(소프라노)

고은빈 최정례

이정원 전성자

박경은 이상

(엘토)

홍성민 임광목

오근찬 우제원

김홍석 박춘선

조재영 이상

(테너)

진동규 이경섭

이준성 유재학

이관성 전인걸

오세일 채은석

윤상언 이상

(베이스)

최영신 김원일

임희수

□ 교육위원회

① 임명

초등부 : 최기봉(남) 정미라(여) 김희정(여) (이상임시)

중등부 : 김성일(남) 이해경(여) 심정란(여) 김은미(여) (이상임시)

고등부 : 강신성(남) 박찬왕(남) (이상임시) 박재호(남·정교사)

② 면

초등부 : 김청옥 김종님 김세현 김성선 김지호 박양순 양복동 김혜성

중등부 : 홍춘식

고등부 : 김종권

이규봉

문영화

장원옥

② 면

제 1 성가대 - 김영미 김영자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총현은 성도 여러분의 교제의 광장이며 기쁜 소리를 나누는 벗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총현은 문을 넓게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글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논단, 제언, 간증 및 수상 등과

2.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 수필, 콩트, 일기 그리고 미담화 등입니다.

3. 혹 원고가 많이 밀려서 늦게 실리는 수도 있고, 편집상 선별되어 실리는 수도 있어오니, 이 점은 양지하시고 주 안에서 많은 참여와 권고 바랍니다.

원고마감 : 매달 15일 이내

원고매수 : 200자 15매 이내

보낼 곳 : 월간총현편집실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3월의 새교우

● 1 지구

중곡2-2구역 이애자
가락1구역 류재학
망우2구역 정현여
구의3구역 신종만
왕십리1구역 장영수
진주구역 김주경
마장구역 정옥자
마장구역 장유진
면목6구역 광화자
중곡1구역 박창우
가락1구역 박숙현
금호4-2구역 강순자
이문1구역 박영희
단대구역 박종구
도선1구역 이정주
구의6구역 이연수
금호3-1구역 송팔선
행당1구역 황종길
도선2구역 임경숙
전호2구역 김영철
성내1구역 엄정옥
망우4구역 김숙녀
장미3구역 윤치숙
용두3구역 김규중
능동구역 김영림
용대구역 이윤석
용대구역 김진수
전호2구역 김동진
목동3구역 이종룡
성수2-1구역 강명자
전동1구역 박순희
행당1구역 위숙

● 2 지구

미아3-1구역 김명자
삼선3구역 나승순
광희1-2구역 전천섭
정릉3구역 김숙경
정릉4구역 박병욱
돈암1구역 이태걸
돈암2구역 정해옥
미아4A구역 장숙자
쌍림1구역 김요섭
쌍림4구역 박정희
신당1-1구역 윤일근
신당1-2구역 조영현
신당1-5구역 여현나
수유2-1구역 정변모
미아6구역 김광길

● 3 지구

장동11구역 송남경
불광2구역 이미화
역촌구역 정옥자
이화구역 김효준
홍제2구역 전순신
중신구역 조춘자

● 4 지구

한양2구역 오문숙
목정4구역 한상유
개나리1구역 김동우
인현2-3구역 여용훈
논현3구역 홍주희
도곡1구역 이정은
영동1구역 박성출
아현구역 여화숙
화곡1구역 이명석

● 5 지구

독산3구역 김서윤
상도3구역 이해준
강남2구역 변혜정
독산1-3구역 김광수
후암구역 이철
이태원2구역 자순여
방배A구역 백남익

결 혼

- 정미용군(을지6구역)과 김현자양(김용만장로 최옥순집사 딸) 3월 22일
- 임상규군(김태전권사 아들 금호구역)과 피윤숙양(망우구역) 3월 22일
- 김성주군(김해득씨 유분홍권사 아들) 3월 22일
- 조해영양(조명희씨 이현실권사 딸) 3월 23일
- 홍해남군(홍병옥, 김성실씨 차남 천호1구역) 3월 25일
- 이철수군과 문옥희양(면목구역) 3월 26일
- 최성희양(최찬후집사 이춘실집사 딸) 3월 26일
- 이성남군(제1성가대 이덕순권사 아들)과 이윤주양 4월 6일
- 김기형군과 주규정양(구의구역) 4월 9일
- 오영석군(문유덕권찰 아들 화곡구역) 4월 5일

- 이용주군과 이복숙양(중동부교사 이춘구역) 4월 9일
- 고건일군과 홍연례양(시영3구역) 4월 9일

별 세

- 박화선씨(천호3구역) 3월 17일
- 변곤상씨(연남구역 편일숙씨 부친) 4월 17일
- 김홍기씨(청량리구역 김호철군 부친) 4월 17일
- 김갑돌씨(성원구역) 3월 29일
- 이규선장로(이원길강도사 부친) 3월 31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장새부와 세레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새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레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세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12시로, 장새부는 새신자 부실에서 세레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4 월의 행사

◇ 교회

1 일 / 정기당회
8 일 / 전체철야기도회
14 일 / 장립집사 안수식

◇ 전도위원회

8 일 / 여전도회 월례회
10 일 / 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24 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5 일 / 교사체육대회
24 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7 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3 일 / 정기제직회
10 일 / 권사회 임원회
17 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4 일 / 구역권찰회의

◇ 재정위원회

3 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24 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17 일 / 출판국 월례회
17 일 / 월간 충현 4월호 발행

편 집 후 기

◎ 왕! 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갑자기 버-스 차체가 잠시 흔들렸다. 온 몸의 머리 털까지도 긴장하였다. 지하철 공사장인 지하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신문에 심심찮은 사고기사에 그렇잖아도 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한터인데 무슨 일이 났는가 궁금함과 불안함이 더 하였다.

◎ 내가 20살 나이가 되던 해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적염구 감소증(일명 백혈병)으로 죽었다.

◎ 육체의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라기 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을 다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내가 주 앞에 회계를 해야할 것을 다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두려움을 주었다.

◎ 주 앞에서 회계할 시간이 있는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복된가! 갑작스런 죽음들이 있음을 볼 때에 하루 하루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 회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회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윤 명 식
편집위원 /

이 성 근	이 세 열
윤 영 탁	안 석 렬
김 영 구	조 현 명
김 차 생	우 기 전
이 훈	정 은 표
오 태 용	이 형 수

1983년 4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4월호

제12권 제 4 호

통권제109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4월 15일 인쇄

1983년 4월 17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윤 명 식
주 간 / 김 영 구
편집부장 / 문 영 화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세례식 (3. 25)



성찬식 (3. 27)



(성찬식 (3. 27)



금현교회와 장병기 전도사 (3. 20)



금현교회에서 제1 남전도회 임원들과 임원들과 함께 (3. 20)



(예배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는
김 장인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詩 18:1